

소개: 마리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다

Series Intro Seeing Jesus - 누가복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격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독특한 인간 중 한 명인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MVMT 1: 마리아 Mary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그의 복음서 초기에 우리에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모 그리고 삼촌).

그가 제시하려는 대조는 마리아Mary의 성격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가임 연령도 훨씬 지났습니다.

스가랴는 아비아의 제사장 반열에 속해 있었고 성전에서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선구자로 시작됩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는 높은 제사장이다.

그는 성경-아브라함, 모세...를 알았습니다.

그는 알아야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Mary를 만납니다. 천사는 또한 그녀에게 독특한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녀를 방문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서 할당. 신은 현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야기. 그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인간에게 자신을 제한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형성합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에 의해 잉태되어 탄생될 것입니다.

그녀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궁을 열어두셨다면 이것은 참으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누가복음 **1:38**

이제 이것이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정녀가 출산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찾아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도착.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청지기에게 큰 믿음과 대가를 치르고 계속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임무.

함께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조롱에 직면할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심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 마리아는 사생아를 둔 여자로 여겨질 것이고 요셉은

그녀와 이혼할 수 있는 용기나 명예.

이 복음서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예수님은 30대가 되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진흙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생아에 대해.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존경받아야 하지만 오해와 비방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었습니다. 마리아Mary는 10대였을 것입니다(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부르기 위해 요구될 성품의 유형을 그녀에게서 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나이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젊은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것인지를 강조하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삶에서 가졌을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요셉의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강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생아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먹이통에는 만왕의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급한 마구간 안에 있는 우주는 사방에서 동물의 냄새와 소리를 낸다. 주님은
겸손하게 다가옵니다.

잠시 동안 마리아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달 동안의 조롱과 고통끝에,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의 구주를 모신 구유입니다.

그 모든 고통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상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천사들의 무리가 천한 목자들에게 도착하여 세상의 구세주께서
태어났다. 가서 그에게 경배하십시오.

그들은 도착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무적이었습니다.

전환 1: 오늘 살펴볼 텍스트의 배경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MVMT 2: 유지 + 숙고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2:19**

마리아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단어는 “지키다”를 의미합니다.

천사들, 사가랴 와 엘리사벳, 그녀의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약혼자, 천사들의 합창,
그리고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오는 목자들.

그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모든 사랑, 그의 보살핌, 그의 존재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본문에는 “마음에 생각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숙고"라는 그리스 개념을 읽습니다. 우리는 생각
The Thinker와 같은 조각상.

(내가 9살 때 로스에서 이 남자의 복제 조각상을 본 기억이 난다...그것은 나를 사로잡았다..

Augusta Rodin은 1880년에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작은 복제품이

Ross에서 엄마와 여동생을 기다리는 9살짜리 심심한 아이가 발견함)

산 중턱에 앉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각도를 고려합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복음서를 썼다면 그 생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마리아의 믿음과 성품을 가장 깊이 예증하는 한 가지 특성은 제자도는 그녀를 단정짓는 단 하나의 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숙고했습니다.

숙고하다, 히브리어 의미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운반하고, 변형하여

우리가 전달하지 않는 에너지는 무엇이든 전달할 것임을 알기에

변환.

"당신은 변형되지 않은 것을 전송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졌거나 당신 안에서 변화된 것을 세상에 돌려줄 것입니다.

전환 2: 잠시 후 마리아가 "숙고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MVMT 3: 예수의 보복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사람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누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빵도. **40**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여 네 속옷을 빼앗으려거든 겹옷을 내어 주라

또한. **41** 누가 너에게 천리를 가라고 강요하거든, 그들과 함께 천리를 가거라. **42** ~에게 주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그것이 쓰여졌을 때 급진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이빨을 부러뜨렸고, 나는 당신의 이빨을 잘랐습니다.

●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 로마서 **12:21**

●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 “그러나 나는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인간이 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소개하십니다.

● 다른 빵을 돌려라

비인간적 행위는 폭력 행위보다 모욕에 가깝습니다.

● “외투도 주라” - 법은 외투를 담보로 하룻밤 사이에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의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속적인 대응의 예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두 배로 설명합니다.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 그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게 하시고

의인과 불의인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보상을 받을 것인가?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47** 너희가 문안하기만 하면

네 백성아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교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응답: 함께 숙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끝에서 마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계정. 그러나 요한은 그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요한복음 **19:25 KLB**

● 그녀는 십자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 복음서에서 '서 있는 것'은 힘 있는 위치입니다.

● 한 신학자는 이렇게 썼다...

● 그녀의 침묵과 힘은 마치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오늘 나는 십자가형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때때로 어둠은 가질 것이다

그 시간. 하지만 미움과 비통함과 질투와 냉정함은 조금은 멈출 수 있어

그것은 현물로 돌려주기를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성을 변형함으로써

재전송하는 것보다

○ 함성과 항의가 통하지 않는 일이 도를 넘을 때가 있다.

더 오래 도움이 됩니다. 어둠은 그 순간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십자가 에너지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쓴맛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증오, 비통함, 질투, 잔인한 무정함, 어둠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돌려싼.

● 본질적으로: 나는 이것을 멈출 수 없지만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악을 세상에 다시 쏟아 붓지 않을 것이다.

● 예수님처럼 나는 그것을 흡수하고, 그가 나를 치유하게 하고,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돌려줄 것입니다.

○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왕과 함께 설 것이다.

함께 깊이 생각하십시오(열쇠 및 권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와 함께 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해를 끼치고 파괴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켜 당신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과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에서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할 것입니다.